

高麗板本에 對하여

金 斗 鍾

(一)

本 論文은 檀紀四二九四年 十月 二十六日부터 二十八日까지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新築 落成記念 古書展示會에 陳列되었던 「高麗板本 二十二種」을 中心으로 同 大學校에서 講演하였던 抄稿를 그대로 整理한 것이다. 그러므로 高麗板本에 對한 論評이 主로 앞에 記한 二十二種에 局限되어 있다.

高麗 以前에 金石文 아닌 刻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現在 우리가 가진 文獻으로서는 쉽사리 判定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高麗에 들어서서는 書籍의 雕板이 차차로 行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던 高麗의 어느 때부터 雕板 印刷術이 시작되게 되었는가 이 點에 있어서도 明白한 斷定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學者들의 推測으로는 高麗의 刻書의 起源은 大體로 穆宗 初(元年是 西紀九九八年)에 該當되는 十世紀末로 짐작되어 十一世紀의 初인 顯宗 十二年(西紀一〇二一年)에는 이미 大規模의 大藏經 雕板 事業을 일으키었다고 보고 있다. 이 大業을 開始하게 된 動機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史家들이 指摘한 것과 같이 그 當時 契丹이 高麗를 侵略하여 顯宗은 南으로 避亂하고 契丹의 兵은 高麗의 首都 松岳城을 占領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그러나 實力으로는 어찌 할 수 없고 다만 佛天의 힘을 입어 敵兵을 물리치고자 藏經의 刻板에 着手하여 前後 六十餘年 동안에 六千餘卷의 大藏經板을 刻成하였다.

그 후 顯宗의 次子인 靖宗(元年是 西紀一〇三五年) 때에 이르러서는 佛經 以外에 儒教 經典과 史籍의 雕板이 行하여지게 되었으며 靖宗의 弟인 文宗 때에 이르러서는 忠州牧·安西都護府를 비롯한 各地方에서도 書籍雕板이 크게 行하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大藏經의 雕板에 있어서는 文宗의 王子로 出家한 大覺國師 義天이 顯宗 때의 大藏經 板에서 빠진 것을 補充하기 위하여 遼·宋·日本 등에서 새로운 藏經들을 모아 前後 一萬餘卷에 達하는 原續 大藏經을 完成하게 되어 國家的인 雕板事業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룩되었다.

이리하여 第十四代 王인 肅宗 때에 이르러서는 御書房인 祕書閣에 高麗板本の 書冊이 豊富하게 秘藏되었으며 그 外에 宋으로부터 輸入된 北宋板의 經·史·子集들이 함께 收藏되었다.

肅宗은 元來로 文을 좋아하던 王으로서 平素부터 祕閣의 書冊을 널리 利用하여 왔다. 六年(西紀一〇一年) 正月에는 祕閣의 書籍을 閱覽하고 그 書籍에는 모두 印을 찍었는데 그 印文은 「高麗國十四葉. 辛巳歲藏書. 大宋建中靖國元年. 大遼乾統元年」이라는 二十五字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해 三月에는 祕書省의 書籍板本이 많이 破損되므로 國子監에 書籍舖를 두어 祕閣所藏의 文籍板本들을 그 곳에 移藏하였다. (註1)

앞에 記한 印文의 十四葉은 十四代라는 뜻이고 辛巳歲. 建中靖國元年. 乾統元年是 肅宗 六年에

該當된다. 本 印記가 있는 書籍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한 卷도 發見되지 않으나 現在 日本 宮內省 圖書寮에 秘藏된 「通典 二百卷 四十四冊」과 日本 前田侯爵所藏 「重廣會史」에는 앞에 記한 印記가 그대로 찍혀 있다. (註2)

本 印記는 三行縱書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는데 初行이 九字, 二・三行이 各 八字, 合 二十五字로 되어 있다.

高麗國十四葉辛巳歲

藏書大宋建中靖國

元年大遼乾統元年

그리고 年代는 좀 떨어져지마는 앞에서 記한 一萬餘卷에 達하는 原續兩大藏經은 高宗 十九年(西紀 一二三二年)에 蒙古의 兵禍에 모두 燒失되고 말았다. 그 후 다시 君臣 一同은 顯宗이 처음으로 大藏經을 刻할 때와 같이 佛天에 發願하여 二十三年에 避亂의 江都 江華島에서 大藏都監을 두고 刻板을 시작하였는데 本司는 江華에 두고 分司는 慶尙道 晉州 附近에 두어 前後 十六年에 걸쳐 六千五百餘卷, 八萬餘板(十六萬三千面)의 大藏經을 다시 完成하였다. 이것이 現在 陝川 伽伽山 海印寺에 秘藏된 高麗板 八萬大藏經이다. 全世界를 通하여 가장 宏大하고 가장 오랜 冊板이다.

이것으로 보아 高麗가 顯宗 以後로 雕板을 國家的 事業으로서 繼續 推進하여 왔던 것을 넉넉히 짐작하려니와 이 외에 各地의 寺院에서도 佛典의 雕刻이 隨時로 行하여졌으며 이와 함께 大藏都監의 分司가 있는 晉州牧을 비롯한 다른 地方에서도 많은 書籍들이 開刊되었다. (註3)

(二)

이렇게 旺盛한 高麗의 雕刻事業은 前期에 있어서는 주로 北宋板本, 後期에 있어서는 元의 板本에 많은 刺戟과 影響을 받아 왔으며 또 一方으로는 高麗의 獨自의인 板本도 많이 雕刻되었다.

이제 高麗의 刻本들을 說明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三種類에 나누는 것이 便宜할 줄 안다.

그리고 板本의 類를 나누는게 있어 現在 남아 있는 數 많은 高麗板本들을 全體로 對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아마 거의 不可能에 屬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이번 淑明女子大學校의 古書展示會에 陳列된 高麗板本 二十二種을 中心으로 하여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1) 宋板系 板本

現在 陝川 海印寺의 高麗板 八萬大藏經이 여기에 屬한다. 그리고 各 寺院에 開刊된 藏經들도 많이 이 系列에 屬하게 된다.

本 板本들은 字體는 顏眞卿이나 歐陽珣의 體法을 模寫한 것인데 巧를 떠나 寬雅 端正하며 刻字가 精妙하고 字行의 疎密, 版面과 紙面의 調和가 잘 되어 부드럽고 餘裕 있는 自然스러운 版面을 나타내고 있어 單純한 圖書美의 鑑賞으로도 充分한 價値를 갖고 있다. 그 板本들이 거의 鑲梓의 精을 다한 것은 中國 板本書籍의 白眉인 宋板本을 넉넉히 聯想할 수 있다. 現在 陳列된 板本 中에는 「一五, 般若三昧經」 「一六, 大般若波羅密多經」(以上은 趙明基 所藏)과 「一七, 經律異相, 宗鏡撮要」(以上은 通文館 李謙魯 所藏)와 「一九,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卷第二」, 「二〇, 梵網經」(以上은 國立圖書館 所藏)과 「九, 佛說四十二章經」, 「一四, 護法論」(以上은 金斗鍾 所藏)들이 여기에 屬한다.

本 展示會에는 出品되지 않았으나 高麗大學校 圖書館에 秘藏된 「天臺四教儀」도 이 系列에 屬한 板本이다.

(2) 元板系 板本

本 系列에 屬한 板本은 主로 元으로부터 傳해 온 元板冊의 紙面을 板木에 옮겨 그대로 榻刻한 것이 많으며 혹은 元의 大德年間에 流行되던 趙子昂의 松雪體를 模刻한 것도 있다. 그러나 大概是 字行이 細密하고 紙面의 餘白이 勻색하며 字畫이 麗細로 나뉘어 있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앞에 記한 宋板에 比하여 餘裕가 모자란 勻색한 느낌을 주는 版面을 볼 수 있다.



現在 陳列된 板本 中에는 「三, 近思錄」 「四, 周易會通」, 「五, 禮部韻略」 (以上은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 所藏)과 「二, 中庸朱子或問」 (華山書林 李聖儀 所藏)들이 本 系列에 屬한다.

(3) 高麗 獨自의 板本

本 板本들은 主로 當時 高麗人들이 筆寫한 字本을 그대로 雕刻한 것인데 字體나 字行이 고르지 않으며 字形의 大小, 字畫의 麗細가 一定치 않은 것이 많다. 그런 아니라 版面과 紙面의 餘白도 調和되어 있지 않아 板本으로서 大概是 粗雜을 免하기 어렵다.

이러한 現狀을 나타내게 된 것은 本 板本이 主로 官板이 아니고 費用에 많은 制約을 받게 되는 私板本에 屬한 冊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 屬한 것으로는 大藏都監에서 刊行한 「六, 李奎報의 李相國集」, 「八, 李齋賢의 樸翁稱說」 (以上은 淑大圖書館 所藏)과 「二一, 白雲集」 (國立圖書館 所藏)과 「一二, 拙藁千百」 (金斗鍾 所藏, 景印本) 등을 들 수 있다.

以上으로서 本 展示會에 陳列된 板本들을 대강 分類하였거니와 다른 高麗板本에 있어서도 이러한 分類方法을 適用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板本에 따라서는 例外가 있는 것이 없지 않다. 왜냐 하면 高麗의 板本이 發展되어 오는 途中에 字體는 宋板體를 模倣하면서 版面의 字行은 元板에 依存된 것이 있으며, 高麗의 私板本에 있어서도 冊에 따라서는 宋板本이나 元板本을 聯想할 수 있는 훌륭한 것도 없지 않다. 이러한 類로서는 淑大圖書館 所藏 「七, 稼亭集」과 國立圖書館所藏 「二二, 破閑集」에서 볼 수 있다.

(三)

그런데 高麗 中期의 後頃인 高宗 卽(元年是 西紀一二一四年)에 이르러 鑄字(活字)를 使用하여 印書했다는 記錄이 나타났다. 이 記錄은 高宗 卽의 文豪이면서 相國을 지낸 李奎報가 晉陽公 崔怡를 代하여 지은 「新序詳定禮文跋序」가 그의 自著인 東國 李相國集 後集 卷十一에 적혀 있다. 그 文에는 崔允儀의 著 古今詳定禮文 五十卷을 鑄字로써 二十八部를 印出하여 諸司에 分藏케 하였다고 적혀 있다.

本 禮文의 刊行年代는 그 說이 一定치 않으나 大概是 高宗이 江華로 遷都하던 十九年으로부터 李奎報가 卒한 高宗 二十八年 間으로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鑄字의 使用된 年代도 거의 이 期間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高麗의 鑄字印本의 實物은 아직까지 世間에 드러난 것이 없고 다만 鑄字로써 印出된 것이라는 文獻의 證據를 가진 印本이 있을 뿐이다. 現在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四種을 들 수 있다.

- (一) 古今詳定禮文 五十卷, 東國李相國集後集 卷十一
- (二) 孔子家語 一册, 大英博物館藏
- (三)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 卷二 一册, 모리스 구랑 韓國 圖書誌 補遺一册
- (四) 南明泉和尚頌證道歌 一册, 私藏

以上의 四種 鑄字本 中에 (一)의 古今詳定禮文은 이미 說明하였거니와 (二)의 孔子家語는 大英博物館의 解說에 依하면 刊行年代를 西紀一三一七年(忠肅王 四年) 頃 또는 一三二七年 頃이라고 보고 있으며 鑄字印本인지 혹은 鑄字本의 重刊인지는 모른다는 曖昧한 文句를 쓰고 있다(註4) (三)의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도 「모리스 구랑」의 韓國 圖書誌에 載혀 있을 뿐이고 그 實物은 아직 찾아볼 수 없으므로 明確한 斷定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四)의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印本은 現在 나의 手中에 있을 뿐 아니라 現存한 高麗 活字本의 唯一한 重刊本이다. 그러므로 本 印本을 中心으로 高麗의 鑄字本에 對한 考證을 하기로 하겠다.

本 印本은 卷末의 刊記에 「天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一於是, 募工重雕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 晉陽公崔怡謹誌」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이 從來부터 傳해 오던 鑄字 印本을 高宗 二十六年 己亥(西紀一二三九年)에 晉陽公 崔怡가 다시 印出한 鑄字 印本의 重刻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高宗 卽의 鑄字의 資料가 普通 史家들이 이미 指摘한 것과 같이 金屬으로 된 것인지 疑問이 없지 않다. 앞에 記한 「古今詳定禮文」에 載혀 있는 鑄字라는 글자를 그대로 解釋한다면 그 原料가 金屬으로써 鑄造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얼핏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여러 文獻에 依하여 그 鑄字의 原料가 반드시 金屬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斷定하기에는 많은 矛盾點을 發見할 수 있다.

그 一例로는 現存한 唯一의 鑄字本 重刻本인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보면 字體의 大小가 고르지 않으며 字行의 縱橫이나 字體의 整理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 그 原本의 鑄字가 金屬으로 된 것이 아니고 木活字로 된 것 같은 印象을 주게 된다. 아무리 보아도 그 原刻本이 金屬活字로 된 것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李太祖 四年 乙亥(西紀一三九五年)에 高麗末로부터 繼承되어 온 書籍院이 白州知事 徐贊이 만든 刻字로서 大明律直解 百餘本을 印出하여 頒布하였다는 것이 世宗 二十八年 平安監營에서 重刊한 金紙의 跋에 載혀 있다. 또는 太祖 六年에 頒布한 開國原從功臣錄도 粗雜한 木活字로 되어 있는 것도 이미 다 아는 바이다. 萬一에 高麗末로부터 書籍院에 金屬 活字가 傳해 온 것이 있다면 일부러 木刻字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特히 開國原從功臣錄 같은 活字가 그다지 많이 必要치도 않는 그런 貴重한 文獻들을 그렇게 粗雜한 木刻字로 印刷하였을 理가 없다. 그리고 蒙古의 兵禍로 逃避中인 江都 江華에서 戰爭에 必要한 金屬類를 活字 만드는 데 使用하였을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問題이

다. 이 點에 있어서는 韓國 書誌學會誌 第一卷 第二號에 拙稿 「高麗 鑄字本の 重刻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라는 題 下에서 詳論하였기로 여기에서는 그 論 評을 避할까 한다.(註5)

要컨대 高麗의 板本은 穆宗 및 顯宗 初 로부터 大陸에서 輸入되는 北宋板의 刺 戟과 影響을 받아 原續大藏經板을 비롯 하여 儒敎의 經史, 子集들을 많이 雕刻 刊行하였으며 後半期에 들어서서는 元板 에 依한 楊刻本이 많이 流行되었다. 그 리고 이렇게 發展되어 오던 途中에 高麗 의 獨自의인 板本도 많이 보게 되었다.

또 一方으로는 中期의 後頃인 高宗 때로부터 새로운 活字 印本이 考案되어 活字 印本의 最先驅者 로서 그 文化的 자취를 世界에 자랑하게 되었다.

(註)

一. 金庠基, 高麗時代史

第四章, 顯宗—文宗의 治績과 高麗의 隆盛

二. (1) 日本圖書寮漢籍善本書目 卷二

政書類, 通典 二百卷首一卷 四十四冊

(2) 李弘植, 韓國古文化論攷

나, 日本宮內省圖書寮所藏

朝鮮版目錄政書類

三. (1) 中庸朱子或問 一冊, 李聖儀 所藏

恭愍王 二十年 晉州牧開板

(2) 近思錄 二冊, 淑明女子大學校 所藏

忠惠王 四年 晉陽에서 覆刻

(3) 拙藁 千百二冊, 金斗鍾 所藏 景印本

至正 十四年(恭愍王 三年) 甲午 八月 日 晉州牧開板

四. 柳洪烈, 歐美博物館에 陳列된 韓國 工藝品 一九五八年 五月 新太陽 六月號

五. 金斗鍾, 高麗 鑄字本の 重刻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 (書誌 第一卷 第二號)

<筆者 前 淑明女子大學校 總長>